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건축적 형태로 나타낸 도시 주거환경에서 오는  
불안감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 두 원

건축적 형태로 나타낸 도시 주거환경에서 오는  
불안감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 두 원

# 인 준 서

김두원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도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도시는 점차 풍요로워 지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로 인해 소통구조와 생활의 편리함은 질적으로 월등하게 높아진 반면 개개인 삶의 소외, 불안, 고독과 같은 감정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다. 개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면서부터 발생한 도시의 무분별하게 빠른 개발화로 인하여 빈부격차, 범죄 등이 발생되고 개개인은 물질만능주의의 무한경쟁에서 나타나는 소외, 고독감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를 본인은 집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본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최소한의 경계로 인식하였다. 홀로 집을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사회와의 거리감, 고독감, 불안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감정을 기반으로 본인이 바라본 도시사회의 모습과 심리적 요인 등을 차가운 물성을 가지고 있는 철을 이용하여 건축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불안한 도시생활을 하면서 느껴진 불안한 감정이 생겨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좀 더 발전적이고 명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도시의 발달로 인한 건축적 주거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도시생활에서 오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함을 서술하여 작품형성배경을 나타내었다. 둘째, 철로 제작된 건축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심리적 불안함에 대한 조형표현에 대해 알아보았고 타인의 시선과 응시를 받은 감정을 연극적 구성방식과 설치방법으로 서술하여 작품표현방법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 8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2
1. 작품형성배경 .....	2
1) 도시의 발달로 인한 건축적 주거환경의 변화 .....	2
2) 도시 안에서의 타인의 시선과 응시 .....	3
2. 작품표현방법 .....	5
1) 건축물 이미지를 이용한 심리적 불안함 표현 .....	5
2) 철(鐵)을 이용한 건축의 형태 표현 .....	6
3) 연극적 구성, 설치 .....	7
3. 작품분석 .....	9
III. 결 론 .....	28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낮선 집 I 스틸 , LED 15x22x212cm 2014 .....9
- 【작품 2】 낮선 집 II 스텐레스 스틸 , LED, 62x50x145cm, 2014 ..... 12
- 【작품 3】 집으로 가는길, 스틸, LED, 벽돌, 20x20x122cm 2015 ..... 14
- 【작품 4】 불편한 공간, 합성수지 , 철 21x21x160cm, 2015 ..... 16
- 【작품 5】 응축된 집들 합성수지, 철 70x70x187cm 2015 ..... 18
- 【작품 6】 불안한 공간 , 스틸, LED, 100x105x140cm 2015 ..... 20
- 【작품 7】 시선들로부터 오는 불안 , 샷시창문, 형광등조명, 모터(사람들  
형상), 스피커(사람들 수근거리는 소리 채집), 가변크기 , 2015 ..... 22
- 【작품 8】 시선들로부터 오는 불안, 블라인드, 합성수지(자소상), 가변크기, 2015·· 25

# I. 서 론

현대사회는 거대 도시화를 이루면서 개개인들에게 끊임없는 무한경쟁을 촉발시킨다.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개개인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취득한 반면 타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심적으로 고독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복잡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사람들은 항상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려 한다.

본인의 작품은 예측 불가능한 불안으로부터 출발한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혼자 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무인도에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감정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Freud, Sigmund)는 불안<sup>1)</sup>의 원인을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분리체험에서 찾는다. 어린아이는 혼자 있다는 두려움을 이성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불안으로 바꾸어 상황에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안의 원인으로 나타난 감정은 본인이 홀로 살았던 집이라는 공간이 가족과 살았던 공간과는 다르게 가족의 따뜻한 품이 아닌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긴장을 하여야 하고 도시의 무한경쟁 속의 불안한 삶속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장소로 변화하였다.

본인은 독립하여 홀로 살아 왔던 집을 사회의 구조 틀로 바라보고 집의 형상을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철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으로 늘어뜨리고 변형 하였다. 또한 도시에 홀로 살면서 타인의 시선에 대하여 느꼈던 것을 연극적 구성 방식과 설치의 형태를 이용하여 본인이 느낀 도시의 모습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작업을 진행 하였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

1) 어머니 대상의 상실, 거세 등의 '위협스런 상황'이 미리 신호로서 알려주는 불안을 '신호로서의 불안'이라 부른다. 불안 [Anxiety],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II. 본 론

### 1. 작품 형성배경

#### 1) 도시의 발달로 인한 건축적 주거환경의 변화

한 세기 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근대화를 이루었다. 해방과 전쟁 끝에서 한국의 근대는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벗어나 도시에 새 터전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반세기 동안 전개되었던 한국의 근대화는 공간자체의 변화이며 그 결과는 도시위에 만들어진 건축이다. 건축가와 산업, 직업으로서의 건축이라는 개념이 희미하였던 성장 초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꿈을 찾아 옮겨간 민초들이 스스로 건축가의 역할을 하였고 도시의 공간 안에 가난하고 연약하였지만 꿈이 있는 ‘그들의 건축’을 하였다.<sup>2)</sup> 한때 서울의 3분의 2를 채웠었던 소위 ‘달동네’는 스스로 건축가를 자처하며 만든 민중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였지만 강한 욕망과 이상을 가진 삶의 방식이었고 허름하고 열기설기 지어진 조악한 달동네의 집들은 물질의 결핍 속에서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살아갔다. 건축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형편없고 조악하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내재되어있는 건축물이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꿈이 있었던 생존이라는 욕망은 빠르게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 휩쓸려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발달로 인한 도시의 성장과 개발은 물질만능주의<sup>3)</sup>

2)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 2002

3) 물질 만능주의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인간이 가져야할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컫는 말이다. 물질만능주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란 이름으로 그 안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자본주의의 사회로 변화된 도시에서의 건물들은 개발과 성장의 발판아래에서 획일적이고 일반화된 ‘건설만 있고 건축이 없는’ 건축도시로 변화하였다.<sup>4)</sup> 예전 달동네의 건축보다는 외관상 미려하고 체계화된 설계 방식으로 생산되어도 대량생산된 건축물 안에서는 꿈과 욕망은 변질되어 자본주의로 인한 타자의 기호에 맞추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변화된 도시의 주거환경 속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있다. 변화된 도시에서 셋방 살이를 하며 느꼈던 감정은 이 곳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을 쉽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한 감정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다. 도시의 개발로 인해 변화된 건축물의 형상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도시생활에서 느낀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온전한 쉼이 있는 공간이 아닌 경쟁에서 도태되면 무너져 버리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집이 아닌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듯 변화된 도시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으며 무한경쟁에서 나타난 소외, 고독감 등을 느끼며 살아간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주거의 불안정함으로 인하여 정주(定住)<sup>5)</sup>적인 집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 2) 도시 안에서의 타인의 시선과 응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며 항상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 또한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비교를 통한 인식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사물과 사물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간다.<sup>6)</sup>

4) 조명래, 『아키토피아의 실험』, 마티, 2015, p.36~37

5) 정주(定住) :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 네이버국어사전 (<http://dic.naver.com/>)

이러한 비교본능은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이러한 도시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사실상 유럽과 북미에서 승리하고 있는 관료적이고 산업적인 문화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인간을 조직적 인간, 자동인형적 인간, 소비적 인간이라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기계적 인간이다.”<sup>7)</sup> 이렇듯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람을 상품화 하여 자본의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는 경쟁적 관계일 경우에는 비교라는 것이 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비교본능은 홀로 도시에 생활하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기존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이 아닌 도시에 홀로 생활하면서 독자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이윤을 획득해야 하였다. 이러한 경쟁관계에서 오는 남들과의 비교로 인하여 나의 가치가 타인의 가치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불안함과 함께 고독감을 느낀다.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도시생활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함은 타인의 시선에서도 느낄 수 있다. 시선에서 오는 불안함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찾아온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Jacques Lacan)은 시선과 응시에 대해 “일차적인 자아는 또 다른 자아와 분열을 보인다. 보여 지고 있는 나를 보는 주체, 이 두 개는 분리할 수 없이 맞물려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보기만 하는 시선(eye)이 아니라 보여짐(gaze)이 함께하는 중첩적인 것이다.”<sup>8)</sup> 라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나를 판단하고 그것을 타인 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객관화 시킨 정보는 시선을 받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

6) 김태형, 『불안증폭 사회』, 위즈덤하우스, 2010, p 169

7) 에리히 프롬(Erich Fromm),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1977, p 93.

8) 자크 라캉(Jacques Lacan), 『욕망이론』,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옮김, 文藝出版社, 1994, p. 32~33.

## 2. 작품표현방법

### 1) 건축물 이미지를 이용한 심리적 불안함 표현

본인에게 집이라는 개념은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휴식과 따뜻함이 있는 집이었다. 도시생활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동경을 하며 유토피아적 세계를 꿈꾸며 어떠한 꿈을 펼칠 수 있는 화려한 곳으로 상상하면서 홀로 서울에서 독립을 하였다. 그러나 나 홀로 도시 생활을 하며 그러한 환상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집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면서 지낸다는 것 자체도 버거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시스템 안에 개인은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시생활은 낯설고 불안하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도시라는 환상은 실제 이곳에서 생활을 하며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무력감과 함께 불안한 심리 상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홀로 지내온 불안한 주거공간인 옥탑방 생활은 더 이상 편하지 않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도시생활로 느낀 심리적 거리감은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작품 [낮선 집 I], [낮선 집 II]에서 나타난다. 이는 본인이 거주하였던 주택가의 옥탑방을 본인의 작업에 투영하여 나타낸 작품이다. 옥탑방이란 본래 다른 주거형태와는 달리 주거의 기본이 되는 냉,난방에 취약한 온전하지 않은 주거형태로서 다른 주거 공간과는 다른 도시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작품 [낮선 집 I]은 수직의 불안한 구조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옥탑방을 받치고 있는 주택의 형태를 제거함으로써 집이 아닌 집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옥탑방에서 살아가면서 느껴왔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고립등과 같은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작품 [낮선 집 II]에서는 높은 침탑과 같은 철 구조물 위에 집의 형상이 올려져 있는데 이는 본인은 타자와의 경계에서 오는 다름으로 인한 불안한 마

음을 담고 있다. 또한 작품의 아래쪽을 보면 좌대위에 검정색의 물을 담아놓았다. 이는 바닥의 수심을 가늠할 수 없도록 하여 불안감과 공포감의 효과를 나타내려 하였다.

## 2) 철(鐵)을 이용한 건축의 형태 표현

인류의 발전과 함께 건축도 발전하였다. 건축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라 건축의 재료 또한 발전하였다. 지금의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의 재료는 석재, 목재, 콘크리트, 철강재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철은 건축의 뼈대를 튼튼하게 지지하고 건축을 하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재료이다. 철이라는 재료가 건축적 재료로 쓰임으로써 높은 고층 건물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의 빌딩숲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철은 냉정함과 차가움을 나타내기 위해 작품의 형태로서 수직의 불안한 구조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수직의 불안한 형태를 바탕으로 한 작품 [낮선 집 I],[낮선 집 II],[불안한 공간] 이 있다. 이 3개의 작품의 공통점은 건축의 구조적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변환하여 온전하지 않은 집의 형태로 시각적 극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낮선 집 I],[낮선 집 II]에서는 수직의 높은 철 구조물 위에 아슬아슬하게 엮어 있는 형태로 도시생활에서 온 소외감과 고립감을 보여준다. 본인의 작품 [불안한 공간]에서는 수직의 형태로 동떨어져 있는 집의 형태위에 창문이 기하학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와있는 형상을 보여준다. 이는 집을 사회구조의 틀로 바라보았고 각각의 창문은 개인들의 내면을 내포함으로써 도시생활의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형상을 은유적으로 표현 하였다.

또한 [불안한 공간]에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구조물 중 대교(大橋)의 철골 구조물을 이용하여 대교 부분의 트러스 구조에서는 거대하고 단단한 사회 구조 시스템을 보여주었고 그 위에 놓여있는 휘어져 있는 가로등의 불빛은 개개인의 무기력하고 지친 삶을 보여준다.

### 3) 연극적 구성, 설치

도시에서의 생활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은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자주 의식하는 것을 느꼈다. 본인의 유년시절 기억으로 돌아가면 청소년기부터 남들보다 체구가 유난이 큰 본인은 또래 친구들과 집안에서부터 체격의 변화를 가져보라 요구하였고 평균의 체격으로 변화하려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로인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함에 대한 무력감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것은 본인은 자신의 외형이 표준체형과 다르게 보일 것 이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어 타인과 시선을 마주치게 되었을 경우 저절로 불안함이 생기게 되었다. 요즘에 와서도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남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시선을 허공에 두거나 바닥으로 회피하는 모습의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나를 판단하고 그것을 타인 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객관화 시킨 정보는 시선을 받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온 자아와 나 자신 본연의 자아의 모습에 혼돈을 느끼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강하게 느껴 나온 작품이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Ⅰ][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Ⅱ] 두개의 작품이 있다. 이 두개의 작품은 앞서 설명한 기존의 작업방식과는 다른 연극적 구성의 방식과 설치미술의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설치미술은 작품 영역의 관객, 주변의 빛, 소리 와 같은 모든 포괄적인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 설치미술은 공간 속에 놓여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을 구조화 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sup>9)</sup> 즉, 특정 공간에만 구성이 가능하기도 하고 공간의 특성이나 주변

9) 이숙진, 『설치미술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6.

환경의 영향을 받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 I]에서는 전시장의 공간 안에 길게 나와 있는 창문의 형태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며 수군거리는 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 주변에 있는 타자의 시선을 작업을 통하여 느끼게 해주려 하여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도하여 표현하였다.

또 다른 작품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 II]에서는 기존의 전시장이 아닌 큰 창문이 있는 윈도우에 검정색의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본인과 같은 자소상을 제작하여 몰래 창밖을 바라보는 것처럼 연출하였다. 몰래 창밖을 바라보게 연출을 하여서 그런지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깜짝 놀라는 것을 목격하였고 심지어 전시기간 도중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 앞에 동네주민으로부터 혐오감을 준다는 쪽지와 함께 철수를 바라는 것을 권고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의도치 않았지만 조각의 범위 안에서 연극적 효과를 주기에는 꽤 만족스러운 효과를 주었다 생각한다. 이것은 아르토의 연극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을 초인간적으로 또는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극적 장면과 소리를 강조하고 말을 무시한다는 점이며, 셋째는 관객을 공격하는 것을 공공연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라고 언급하였다.

연극적 구성의 방법은 예전부터 조각가들이 이러한 연극적 구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무용이나 연극의 소품으로 조각이 들어가기도 하였고 연기자의 역할을 대신 하기도 하며 무대효과를 나타내는 장치의 일부로 조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sup>11)</sup> 본인은 연극적 구성 중 극적구성, 배우, 무대를 이용하여 밖을 몰래 훑쳐보는 듯한 구성을 하였으며 제작한 자소상은 배우의 역할을 하였고 전시하였던 윈도우 갤러리를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밖에서 안쪽이 안보이게 공간구성을 하여 연극적 구성 방법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10)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 1896년 9월 4일 ~ 1948년 3월 4일)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연출가다.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11)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 , 『현대 조각의 흐름』 , 예경, 2009, p240, 272.

### 3. 작품분석



【작품 1】 낮선 집 I

## 【작품 1】 낮선 집 I

연도 : 2014

크기 : 15 x 22 x 212(cm)

재료 : 스틸, LED 조명

### 제작방법

1. 5x5mm 각 환봉을 이용하여 집 형태의 구조를 아르곤 용접으로 형태를 만든다.
2. 철 구로판 2t를 이용하여 집의 외부형태를 프라즈마 절단을 이용하여 제작 후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3. 3mm 철 환봉을 이용하여 사다리의 형태를 아르곤 용접으로 제작한다.
4. LED 조명을 이용하여 집의 내부형태에 설치한다.

### 작품설명

도시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느껴왔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도시생활이란 생각했던 것보다 치열하였고 차가운 감정을 느꼈다. 기존의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이라는 공간의 개념은 안락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던 반면 홀로 도시에서 셋방살이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 곳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본인으로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다. 서울의 주택건물 옥상에 자리 잡은 나의 주거지는 원래 임시 가건물로 지어져 주거양식 중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냉,난방에 취약하며 온전하지 않은 주거의 형태를 나타낸다.

작품에서는 나의 주거지를 받치고 있는 온전한 주택건물을 삭제함으로써 임시

주거형태의 공간을 좀 더 집이 아닌 집의 형태로 나타내려 하였다. 가느다란 지지대 구조의 형상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져 있음으로서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 또한 동시에 나타낸다. 또한 지지대와 집의형태 사이에는 긴 사다리가 놓여 있다.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은 형상을 표현 하였는데 이는 본인과 도시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간극을 나타낸다.



【작품 2】 낮선 집Ⅱ

## 【작품 2】 낮선 집Ⅱ

연도 : 2014

크기 : 62x50x145(cm)

재료 : 스틸, LED

### 제작방법

1. 4mm 환봉을 이용 트러스 구조물의 형태와 집 형상의 형태를 아르곤 용접으로 제작한다.
2. 40x40mm 각파이프를 이용하여 작품의 바닥을 형성하는 구조물을 제작한다.
3. LED 조명을 내부에 설치하고 작품의 바닥부분에 검은색 먹물을 붓는다.

### 작품설명

도시의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본인역시 이러한 무한 경쟁사회에서 남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보상받은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경쟁의 본질이 변형되는 것을 많이 목격한다. 자본이 만능인 이사회에서 본인은 물질로 인한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에서 이질감을 느꼈고 본인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낌으로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높은 침탑에 놓인 집은 본인을 나타내고 바닥 부분에는 검은색의 물을 채워놓아 타인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나만의 경계를 만듦으로서 사회와의 거리감을 보여준다.



【작품 3】 집으로 가는길

### 【작품 3】 집으로 가는길

연도 : 2015

크기 : 20x20x122(cm)

재료 : 스틸, LED, 벽돌

#### 제작방법

1. 4x4mm 각봉을 이용하여 트러스 구조의 형상을 한 대교(大橋) 형태를 아르곤 용접을 이용하여 만든다.
2. 2mm 아크릴봉을 열성형 하여 변형된 가로등 형태를 제작한다.
3. 대교(大橋) 형태와 가로등 형태를 접합 후 가로등의 부분에 LED조명을 설치한다.
4. 만들어진 작업에 콘크리트 벽돌의 좌대위에 설치한다.

#### 작품설명

도시를 형성하는 많은 구조물 가운데에는 대교(大橋)가 있다. 이 대교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로 사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트러스 구조의 단단하고 규모가 큰 철골 구조물은 거대한 규칙적 반복의 구조로 나타난다. 본인은 이 철골 구조물을 도시의 구조적 형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느꼈다.

고도의 도시성장은 이 다리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다리위에 서있는 가로등은 도시를 살고 있는 개개인을 의인화 하였다. 불빛이 희미한 가로등의 형상은 본래의 가로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휘어져 있고 대교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이는 도시생활에서 개개인의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을 내포하고자 하였다.



【작품 4】 불편한 공간

## 【작품 4】 불편한 공간

연도 : 2015

크기 : 21x21x160(cm)

재료 : 철, 합성수지

### 제작방법

1. 2t 철 구로관을 건축의 형태로 프라즈마 절단한 후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2.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벽돌의 모양과 계단의 모양을 제작한다.
3. 철로 제작된 건축의 형태 위에 에폭시를 이용하여 벽돌과 계단의 모양을 접합한다.
4.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벽돌을 채색하고 회색의 우레탄 페인트를 에어건을 이용하여 계단을 채색하여 마감한다.

### 작품설명

작품 【낮선 집 I】, 【낮선 집II】 과는 다르게 본인이 거주하였던 곳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올라갔다 내려가기 버거워 보이는 계단위에 본인의 집이 있다. 힘들게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본인의 집은 편안함을 선사하는 집의 목적을 상실한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 힘들게 올라왔지만 사회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만 하고 또 다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게 올라가야만 하는 집을 표현함으로써 결코 쉽지 않은 도시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한다.



【작품 5】 응축된 집들

## 【작품 5】 응축된 집들

연도 : 2015

크기 : 70x70x187(cm)

재료 : 철, 합성수지

### 제작방법

1. 40x40mm 각파이프를 이용하여 구조의 형상을 아르곤 용접으로 제작한다.
2. 2t 철 구로판을 플라즈마 절단 후 외부의 형상을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3. 합성수지로 벽들의 형상을 제작한다.
4. 벽들의 형상을 철로 만들어진 구조의 형상위에 에폭시로 접합한다.
5. 작품의 외부를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 하여 마감한다.

### 작품설명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가의 형태를 겹겹이 쌓여 응축된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는 각각의 집들을 포갠으로써 집의 기능을 상실하고 견고한 탑의 모습으로 다시 형성되는데 집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변함에 따라 집의 본래의 목적은 거주에 있는 것이 아닌 투자와 투기의 목적으로 견고하게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작품 6】 불안한 공간

## 【작품 6】 불안한 공간

연도 : 2015

크기 : 1000x105x140(cm)

재료 : 스틸

### 제작방법

1. 5x5mm 각봉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골조를 아르곤 용접으로 제작한다.
2. 2t 철 구로판을 이용하여 외부를 프라즈마 절단후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 작품설명

본인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외로움과 고독감 같은 내적 감정을 창문이라는 형상을 이용하여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집을 하나의 사회 구조 틀로 바라보았고 여기의 집 안에서의 창문은 도시를 살고 있는 각 개인들의 내면을 보여준다. 이 창문은 집으로부터 기하학적으로 길게 떨어뜨려 놓았는데 이는 도시의 사회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창문의 구조는 집의 내부의 구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형상을 보여준다.



【작품 7】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 I

## 【작품 7】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 I

연도 : 2015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샷시창문, 형광등조명, 모터, 스피커

### 제작방법

1. 50x50mm 각 파이프를 이용하여 벽과 샷시창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틀을 아르곤 용접으로 제작한다.
2. 2mm 합판을 직소기로 제단 후 화이트 큐브 벽과의 통일성을 주기위해 흰색 페인트로 칠을 한 다음 철 피스를 이용하여 샷시창문과 함께 틀에 접합한다.
3. 10t의 하드보드지로 사람 형상의 그림자를 제작하고 1hp 모터를 이용하여 그림자를 움직이게 한 장치를 설치한 후 샷시창문 내부에 설치한다.
4.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녹음을 한 후 스피커를 연결하여 샷시창문 내부에 설치한다.
5. 전시 공간의 특성에 맞게 창문의 설치 위치를 지정한 후 목공용 피스로 샷시와 벽을 접합한다.

### 작품설명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나를 판단하고 그것을 타인 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관찰에 객관화 시킨 정보는 시선을 받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본인은 그것을 불투명한 유리의 샷시창문을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불투명한 창문 안에서 사람들 형상에 움직임을 주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소리를 설치하여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감을 극대화 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창문의 성질은 열고 닫음으로써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기도 하는데 본 작품에서는 창문을 여는 기능을 없앴으로서 일방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려 하였다.



【작품 8】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Ⅱ

## 【작품 8】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Ⅱ

연도 : 2015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블라인드, 합성수지(자소상)

### 제작방법

1. 본인의 자소상을 흙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캐스팅 하여 제작한다.
2. 50x50mm 철 각파이프와 5mm 연선 철을 이용하여 본인과 같은 신체사이즈의 형태를 제작한다.
3. 캐스팅 제작된 본인의 자소상을 철 골조의 본인의 형태와 접합한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자소상을 채색한 후 본인이 평소 입었던 옷을 철 골조에 입힌다.
5. 윈도우로 되어 있는 전시 공간의 특성에 맞게 제작한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자소상을 전시장 내부에 설치한다.

### 작품설명

본 작품은 특정 윈도우 갤러리에 설치된 작품이다. 큰 창문이 있는 윈도우 갤러리에 검정색의 블라인드를 늘어뜨려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윈도우 갤러리 내부에는 본인과 같은 자소상을 제작하여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연출하였다. 이는 타인이 인식하는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데

대한 궁금증으로 제작되었다.

타인을 의식하는 나라는 주체는 항상 남의 시선을 불안하게 의식하였고 그 시선의 부담감으로 인해 본인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는 것 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안절부절 하고 불안하였었다. 그로인하여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면 항상 나의 시선은 타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허공을 보거나 바닥을 보는 모습을 본인은 자주 느꼈다.

본인은 이렇게 남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불안함으로 나타나는 나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선을 블라인드의 가림막 뒤에서 바라보면서 관음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시선을 마주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남들의 시선을 그곳에서 나마 마주하여 나타내려 하였다.

### Ⅲ. 결 론

본 연구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오는 도시에서의 삶의 모습을 담으려 하였고 이러한 도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료를 통하여 무한경쟁 속에서 오는 도시에서의 삶의 불안한 내적 심리의 모습을 담아내려 하였다. 앞서 말한 프로이트 (Freud, Sigmund)의 말처럼 가족에서 독립하여 나와 도시에서 살게 됨으로 인한 소외감과 불안함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부터 인한 본인의 감정 변화를 중점으로 도시인의 내적심리를 담아내려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안한 감정이 건축적 형태와 연극적 구성과 설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건축적 형태로 나타낸 작품에서는 도시의 냉정함과 차가움이라는 느낌을 주기위하여 철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철을 이용하여 수직형태의 기하학적인 불안한 구조로 변환하여 도시생활에서 느낀 타인과의 경쟁에서 오는 불안함과 소외감 등을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작품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 I, II]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을 공간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연극적 구성방식과 설치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됨으로서 본인 작업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본인 자신에 집중하여 바라보고 도시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집요하게 관찰하여 평소 느껴왔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시키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 2002
- 조명래, 『아키토피아의 실험』, 마티, 2015
- 에리히 프롬(Erich Fromm),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1977
- 자크 라캉(Jacques Lacan), 『욕망이론』,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옮김, 文藝出版社, 1994
- 로잘린드 크리우스스(Rosalind Krauss), 『현대 조각의 흐름』, 예경, 2009

## 《참고 논문》

- 이숙진, 「설치미술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6.

## 《홈페이지 및 기타》

- Naver 국어사전 <http://www.dic.naver.com/>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Anxiety from urban living conditions by way of constructional form.

—On the foundation of my work—

Kim, Doowo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velopment of science and civilization is pushing the urbanization process at an alarming pace. Due to rapid development cit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fruitful. While digital culture has led the communication structure and convenience in life to its paramount, it is at a state where emotions such as alienation, anxiety, and solitude of individuals are ever increasing. Indiscreet development of city rooting to the individuals forming a group gave birth to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gap in wealth, crimes, self-alienation from the materialistic relentless competition and solitude in our lives.

I have recognized this city through the space we call home, as the minimal border between the society and myself. Concentrating on the adverse perception I felt whilst living alone such as distance from the society, solitude, and anxiety, and it is these emotions that formed the basis of my

views on the urban society and psychological elements, which I have expressed as an architectural form using steel with property of coldness.

This research is aimed to concretely reveal the grounds for the emerging feelings of anxiety from urban living, and with the same background to seek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more expansive and definite artwork.

This research paper is a composition as follows based on the art pieces from 2014 to 2015.

First chapter introduction depicts the direction of research and the purpose of my artwork.

Second chapter body narrates on first, the formational background of my artwork by describing the constructional aspect in residential environment change due to urban development, and the anxiety towards the strangers' eyes coming from city living. Secondly, researched on the sculptural expression on psychological anxiety using the image of steel architecture, and represented the methodology of expression by depicting the emotion from strangers' eye as dramatic format and installation method. Lastly, individually described the 8 artwork of this researcher.

Third chapter conclusion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paper and presents the upcoming direction of work.